

# “‘세월호 7시간’ 대통령 직접 밝혀라”

### 현재, 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 열고 요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명 우선 증인 채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첫 심리를 연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동안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22일 오후 2시에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했다.

준비기일을 담당하는 수명(受命)재판관 3명 중 한 명인 이진성 재판관은 “증거정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석명하겠다”면서 “소추위원 측에서 제기하신 소추사유 중에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관한 세월호 참사 당시의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기재하시고, 소추사유로 기재돼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게 많지 않기에 밝혀진 시간만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에 중요한 의미 가진 날”이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난다고 저는 본다. 문제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봤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언론기사나 정문회 등에 의하면 여러 보고 받았으니 결코 왜 있다”면서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 수령 시간이나 그에 대한 대응 지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남김없이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주시길 것을 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연락해서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 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겠다”면서 “박 대통령 본인에게도 물어보고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이날 1차 준비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 정리에 나섰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이 적시한 9가지 탄핵 사유 쟁점을 크게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시 발생현황과 대책 점검** 국회 김영춘 농해수위원장과 위원들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시중양사고 수습본부를 방문, 시 발생현황과 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다.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씨 등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 기사 등 총 49개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이날 고(故) 김영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 내용을 보도한 월간지 기사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소추위원 측은 아직 확보 못한 문서에 대해 현재에 인종등본송부추탁 신청했다. 또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박영수

특별감사팀 사무실에서 기록을 열람, 조사해 달라는 서증조사 신청도 함께 냈다.

박 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슴자료와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정규제 관련 내용 등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최씨 등 28명의 증인을, 박 대통령 측은 최씨와 안종범, 정호성, 조원동 등 4명을 신청했다.

이에 현재는 양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 3명을 우선 채택하고 조 전 수석을 비롯한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차 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

특검팀, 정유라 지명수배... “우병우 청문회 주목”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감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를 기소종지 조치하고 지명수배하는 등 강제송환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정씨에 대해 기소종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과 협의 없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점에 대해서는 “만일 정씨가 가진 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 들어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 변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 의혹, 삼성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의 특혜 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씨의 ‘돈세탁’ 장구로 지목된 더블투케이 독일 법인 지분을 넘겨 받은 정씨가 포착되고, 독일 내 5억원대 주택을 보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독일 검찰은 최씨 일가의 돈세탁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현재 정씨의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 못하고 있다. 다만, 독일에 체류하는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20일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러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 독일 검찰과의 수사 공조 절차도 밟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국정조사 청문회도 주목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와 함께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검찰의 수사에 의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된 법리 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뉴스

# “KTX 혁신도시역 신설해야”

### 안호영 의원, 토론회 열어... “김제역, 공덕면으로 이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정수)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과 김제역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관춘 본사 전무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강성주 군장대 초빙교수는 발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지역개발 차원에서 김제역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혁신역은 연계교통망과 주차 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등 도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김제역은 하루 이용객이 1백40명에서 30명으로 급감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폐지 위기에 처한 김제역을 접근성이 뛰어난 김제 공덕면으로 이전해 혁신도시역을 신

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역이 신설되면 혁신도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유동성 증가와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되며 역세권 개발을 통해 전주 등 인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임승규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박진용 철도시설공단 부장은 이에 대해 “고속철 적정 역간거리, 건설비용 부담, 안전문제, 혁신역의 기능 등을 감안할 때 혁신도시역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경제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도 “혁신역사 신설의 필요성은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자칫 자치단체간 소모적 분쟁 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사전 준비와 조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과 김제역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등을 거쳐 정치권과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풀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김광수 사무총장, 김중희 의원, 민주당 진선미 의

원 등이 참석했고 운주현 김제시의회 안 전개발위원장, 김점동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호원 한국철도공사 CRM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인재용 기자

**시티투어 탑승요금**

코스	지역	요금
당일코스	내장산 고풍	27,900
당일코스	내장산 국화	27,900
당일코스	선운사 열차	81,000
당일코스	고창·부안	24,900
당일코스	선운사 메밀	24,900
당일코스	선운사 변산	25,900
당일코스	변산반도	24,900
1박2일	서남권 가을	119,000
1박2일	서남권 체험	119,000
1박2일	서남권 문화	119,000

**탑승장소 안내**

- 서울 시청역 8번 출구 앞
- 서울 교대역 9번 출구 앞

**예약문의**

- 온라인예약 : (주)어스캐치여행사  
www.toursketch.co.kr T. 02-701-2506
- 점심시 관광개발과  
www.jeongeup.go.kr T. 063-539-5233
- 고창군 문화관광과  
www.gochang.go.kr T. 063-560-2457
- 부안군 문화관광과  
www.buan.go.kr T. 063-580-4778

아름다운 풍경+전통의 미(美)+삶의 여유(일행)

## 서남권 시티투어

정음·고창·부안,  
전라북도 서남권 시티투어에서  
아름다운 풍경+전통+삶의 여유를  
만나세요

정음시, 고창군, 부안군

**서남권시티투어**

서남권 시티투어는 전북 서남권 3개 시군 정음, 고창, 부안의 아름다운 경치뿐 아니라 전통의 미(美)와 삶의 여유를 즐기도록 구성했습니다. 서남권(정음, 고창, 부안)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쓸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당일코스, 1박2일코스로 운영됩니다.

**시티투어 이용기간**

- 당일코스 - 매주 수, 목, 금, 토, 일, 공휴일 출발
- 1박2일코스 - 매주 금, 토, 공휴일, 지정일 출발